DevPE 기술사 1:1 멘토링 ·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수험자용

기술사 학습 전략

암기장을 중심에 두고, 토픽 PDF로 깊게 들어가고, 모범답안 PDF로 매일 씁니다.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은 반드시 복기합니다.

길리랩 (GilliLab) · 정보관리기술사가 운영하는 1:1 멘토링

작성일 2026-11-24

암기장
정의집으로 시작해 암기장 전체를 매일 회독(스노클링)

▶

토픽 전략
토픽 PDF로 다이빙 · 기본토픽 500

▶

답안 전략
모범답안 PDF로 필사 → 셀테 · 1일 1셀테

▶

실전
학원 모의고사 · 실제 기술사 시험

▶

복기
강점·약점, 좋은 답안·나쁜 답안 → 세 축으로 되돌림

1부. 학습 로드맵

교재는 모두 길리랩 (GilliLab)이 만든 PDF입니다.

축	교재(PDF)	역할	언제
암기장 (중심)	**기술사 정의집** — 1,785토픽 한 줄 정의 **DevPE 암기장** — 1,785토픽 · 766쪽	전 범위를 넓게 만나는 회독 자료(스노클링). 정의집으로 토픽명과 뜻을 먼저 넓히고, 익숙해지면 암기장 전체로 넘어갑니다. 두 책은 토픽 번호가 같습니다. 모든 공부가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로 돌아옵니다	매일, 시험 당일까지
토픽 전략	**기술사 답안 노트 I** — 핵심 키워드 100 + 도메인 10권 (권마다 100토픽) 기술사 답안 노트 II — 도메인 심화 9권 **(출시 준비 중)**	필요한 토픽을 답안 한 편 깊이로 보는 자료(다이빙). 한 장이 답안 한 편의 뼈대입니다	핵심 키워드 100 → 도메인 10권(기본토픽 500) → II 9권
답안 전략	**DevPE 모범답안** — 도메인 모범답안(1교시형) · 2교시 분야별 · 회차별 기출 **(출시 준비 중)**	답안지 형식을 손에 익히는 필사·셀테 자료	1교시형 매일, 2교시형 주 1회
실전	학원 모의고사 · 실제 기술사 시험	시간 안에 쓰고 **복기**로 강점·약점을 찾는 단계	기본토픽 500 이후 학원 모의고사, 실제 시험은 회차마다

- 답안 노트 I 도메인 10권: 소프트웨어공학 · 데이터베이스 · 정보보안 · 네트워크 · 인공지능 · IT경영/PM · 컴퓨터구조/OS · 클라우드/빅데이터 · 디지털융합/법제도 · 알고리즘/통계분석.
- 모범답안 PDF가 출시되기 전에는 **무료 모범답안 PDF**(`blog.gillilab.com/lead/devpe-model-answers`)와 필사 영상 (유튜브 `@gillilab_devsalt`)으로 필사를 시작합니다.

2부. 학습 방법

1 원칙: 시간과 1일 1셀테

구분	권장 시간	하는 일
평일	**3시간 (180분)**	암기장 회독 45분 → 1셀테 한 교시 100분 + 대조 30분 → 기록 5분
휴일	**8시간**	암기장 회독 90분 → 셀테 한 교시(주 1회는 2교시형) + 대조 → 토픽 다이빙 2시간 → 재작성 1시간 → 주간 점검. 학원 모의고사가 있는 날은 모의고사와 당일 복기
바쁜 날	**최소 30분**	암기장 회독 20분 + 정의 2줄 5개 쓰기. 공부하지 않은 날을 만들지 않습니다

- **1일 1셀테 또는 필사.** 매일 한 교시 분량(100분)을 손으로 씁니다. 처음에는 필사로 시작하고, 준비된 토픽부터 완전셀테(답안을 보지 않고 쓰기)로 바꿉니다. 필사만 한 날도 셀테를 한 날입니다.
- **한 문제를 한 교시로 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란 날은 쓴 분량을 그대로 기록하고 다음 날 조정합니다.
- 권장 시간은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걸린 시간을 기록하고 내 생활에 맞게 바꿉니다.

2 암기장: 스노클링 후 다이빙

- **스노클링:** 처음에는 정의집으로 1,785토픽의 이름과 한 줄 정의를 빠르게 넘깁니다. 정의집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주 회독 자료를 암기장으로 바꿔 핵심항목과 키워드까지 봅니다. 바꾼 뒤에도 뜻이 흐린 토픽은 정의집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모르는 토픽은 표시만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루 완독을 목표로 하지 않고 반복하며 속도를 높입니다. 회독을 쉽게 하려고 범위를 줄이지 않습니다.
- **다이빙:** 표시한 토픽은 토픽 PDF(답안 노트)에서 깊게 봅니다(→ 3절). 회독 중 한 토픽을 30분째 찾아보고 있다면 스노클링이 다이빙으로 바뀐 것입니다. 표시만 하고 다이빙 시간에 확인합니다.
- 다이빙을 시작해도 암기장 회독은 시험 당일까지 계속합니다.

2-1 토픽명이 답안의 항목이 됩니다

넓게 읽는 이유는 모든 토픽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뜻을 정확히 아는 토픽이 늘수록 답안에 넣을 항목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깊이 공부하지 않은 토픽도 뜻과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답안의 한 행이 됩니다.

예: 「서버리스 환경의 보안 고려사항」을 써야 할 때, 회독으로 만난 토픽명이 표의 요소 칸에 들어갑니다.

구분	요소(토픽명)	설명
접근 통제	IAM · 최소권한	함수마다 실행 역할을 나누고 필요한 권한만 부여
데이터 보호	암호화 · 키 관리	저장·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키 접근을 통제
진입 보호	API Gateway	인증과 요청 제한으로 외부 호출을 통제
탐지·대응	로그 · 모니터링	호출 이력과 이상 징후를 추적

토픽명을 많이 나열한다고 좋은 답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이 요구하는 것에 맞는 토픽을 골라** 왜 필요한지 한 줄로 연결합니다.

3 토픽 전략: 기본토픽 500 다이빙과 토픽맵

기본토픽 500 고르는 법: 「핵심 키워드 100」 전부 + 답안 노트 I 도메인 10권에서 권마다 40개 = 500개. 권 안의 중분류마다 앞쪽의 기본 개념 토픽부터 고릅니다.

한 토픽의 다이빙 완료 기준 (네 가지 모두)

1. 정의 2줄을 보지 않고 쓴다.
2. 개념도나 구성도 1개를 백지에 그린다.
3. 같은 수준의 비교 토픽 1개를 3단표로 비교한다.
4. 연관 토픽 3개와 연결되는 이유를 말한다.

완료한 토픽은 답안 노트 뒤쪽의 회독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고, 주간 점검 때 완료 수(○○/500)를 셉니다. 500을 끝내면 답안 노트 II로 넓힙니다.

토픽의 연관관계 — 길리랩 토픽맵 `gillilab.com/topic-map` (무료)

1. 기준 토픽을 검색해 정의를 확인합니다.
2. 연관관계맵과 3D 네트워크에서 주변 토픽을 봅니다.
3. 왜 연결되는지 한 문장으로 말해 봅니다.
4. 답안의 비교표·고려사항·관련 기술 항목에 적용합니다.

자주 비교되는 짝은 3단표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예: ISP–ISMP, 감리–PMO, ISMS–ISMS-P, 세마포어–모니터). 지도를 외우거나 예쁘게 그리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회독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4 답안 전략: 필사 → 셀테

구분	횟수	분량	관찰할 것
1교시형	평일 매일	한 교시 = 10문제, 답안당 1~1.5쪽	정의 2줄을 만드는 방식, 토픽 유형별 목차, 그림 아래 간글, 3단표, 비교 토픽
2교시형	주 1회 (휴일)	한 교시 = 4문제, 답안당 약 3쪽	문제 지문을 목차로 바꾸는 방법(가·나·다 → 대제목 1:1), 1단락 개요도

- **필사는 베끼기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문장을 외우려 하지 말고 **왜 이 제목인지, 왜 여기에 그림을 넣었는지, 표의 행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봅니다.
- **필사에서 셀테로:** 필사한 토픽은 다음 날 답안을 덮고 목차와 정의를 먼저 써 봅니다. 목차가 막힘없이 나오는 토픽부터 완전셀테로 바꿉니다. 전환 시점과 비율은 스스로 정합니다.
- **셀테 뒤에는 대조:** 쓴 답안을 모범답안과 나란히 놓고 빠진 요구·정의·그림을 표시합니다. 표시가 많은 답안은 같은 문제를 다시 씁니다. 따로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고 **재작성이 오답노트**입니다.
- **실제 답안지 형식**(A4, 1쪽 22줄)에 **검은색 펜**으로 씁니다. 문항 끝에는 「끝」, 교시의 마지막 답안 다음 줄에는 「이하여백」을 씁니다.

5 실전: 학원 모의고사 · 실제 기술사 시험 · 복기

실전에 들어가는 시점

- **학원 모의고사:** 기본토픽 500을 대부분 끝내면 다니는 학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합니다. 4교시 전체를 실제 시험 순서와 시간(교시당 100분)으로 봅니다.
- **실제 기술사 시험:** Q-Net 연간 일정에서 응시할 회차를 **먼저 정하고** 거꾸로 계획합니다. 「준비가 다 되면」 응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매 회차가 가장 좋은 실전 연습입니다.
- 마지막 1주는 새 자료를 늘리지 않고 회독·실전 감각·준비물(신분증, 검은색 펜, 수정테이프)을 점검합니다.

복기가 실전의 절반입니다

시험을 본 것만으로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복기를 해야 나의 강점과 약점, 좋은 답안과 나쁜 답안이 구별됩니다.**

시점	할 일
당일 (기억이 남아 있을 때)	① 교시별 문제와 내가 고른 문제·안 고른 이유를 적는다 ② 내가 쓴 목차·정의·그림을 기억나는 대로 다시 쓴다 ③ 교시별 시간 배분과 못 끝낸 문항을 적는다
1~3일 안	암기장·토픽 PDF·모범답안과 대조해 문항마다 좋은 답안·나쁜 답안을 판정하고, 나쁜 답안의 원인을 나눈다
학원 첨삭이 오면	점수와 첨삭 내용을 내 판정과 비교한다. 내가 좋다고 본 답안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판정 기준을 고친다
다음 주 계획	원인별로 세 축에 되돌린다(아래 표)

좋은 답안과 나쁜 답안을 가르는 기준

좋은 답안	나쁜 답안
문제가 물은 것(대상·범위·가나다 소문항)에 모두 답했다	요구 하나를 빠뜨렸거나 묻지 않은 내용을 길게 썼다
정의가 정확하고 첫 두 줄에 핵심이 있다	정의가 흐리거나 상위 개념이 틀렸다
목차가 문제 문구와 1:1로 맞는다	아는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림·표와 간글로 구조를 보여줬다	문장만으로 채웠다
시간 안에 끝내고 「끝」을 썼다	앞 문항에 시간을 써서 뒤 문항이 미완성이다

나쁜 답안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고, 해당하는 축으로 되돌립니다

원인	신호	되돌릴 곳
몰랐다 (지식)	토픽명이나 정의가 떠오르지 않았다	암기장 회독에서 표시 → 토픽 PDF 다이빙 목록에 추가
알았지만 못 썼다 (답안)	내용은 알았는데 목차·그림을 못 잡았다	모범답안 PDF로 같은 유형 필사 → 같은 문제 재작성
시간이 모자랐다 (실행)	문제 선택이 늦었거나 한 문항에 오래 머물렀다	매일 셀테에 타이머 적용, 문제 고르기 연습

강점도 적습니다. 잘 쓴 도메인과 답안 유형은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고, 약점 쪽에 다음 주 시간을 더 배분합니다.

6 추가 원칙

#	원칙	이렇게 합니다
1	**문제가 물은 것이 형식보다 먼저**	아는 것을 다 쓰지 않고 질문의 요구에 답합니다. 1교시는 정의 2줄, 2교시는 1단락 개요도가 답안의 첫인상입니다
2	**시간 감각을 매일 훈련**	1교시는 문항당 약 10분, 2~4교시는 문항당 약 25분입니다(문제 고르는 시간 포함). 필사할 때도 타이머를 켭니다. 손으로 쓰는 속도는 매일 쓰는 양으로만 늘어납니다
3	**피드백은 외부에서**	첨삭은 다니는 학원의 멘토나 알고 지내는 기술사에게 받습니다. 받은 피드백은 재작성으로 반영합니다
4	**최신 동향은 주 1회**	새 법령·가이드·신기술을 주 1회 확인하고 해당 토픽을 다이빙 목록에 넣습니다. 법령과 표준은 개정되므로 답안에 쓰기 전에 최신 판을 확인합니다
5	**주간 점검 세 가지**	① 암기장 1회독에 걸린 시간 ② 이번 주 셀테 교시 수(필사·완전셀테 비율) ③ 기본토픽 500 완료 수. 실전 단계에서는 복기의 원인 분류를 더해 다음 주를 조정합니다
6	**컴시응 수험자는 계산형 따로**	캐시 주소 계산, AMAT, 페이지 교체, CPU 스케줄링 대기시간, IEEE 754, 해밍 코드를 별도로 반복합니다

7 하지 않는 것

- 회독을 빨리 끝내려고 범위를 줄이기. 시험은 전 범위에서 나옵니다.
- 읽기만 하고 쓰지 않는 날을 이어 가기.
- 모의고사나 시험을 보고 복기 없이 넘어가기.
- 새 자료를 계속 사 모으기. 지금 가진 교재를 내일 어떻게 펼칠지가 먼저입니다.

계획은 함께 드리는 **실천계획서**(시험일까지 → 월간 → 주간 → 일일)에 적고, 교육 이후의 실행과 조정은 수험자 본인이 합니다.